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창립 멤버 송병준(사진 왼쪽) 고문과 신동구 초대회장.



영등포교도소 '불교콤비' 남강수 대한불자기술회 명예회장과 전국불교교정인연 이영복 재정국장.

# '일등 포교사' '으뜸 일꾼' ... 열정적인 회향

'일과 신앙의 일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놓을 수 없는 일터불심의 회향이다. 눈 고 또 세 없 이 바쁜 업무, 직장불자회 활동과 개인의 수행.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직장불자들의 속사이다. 그러다보니 고민도 따라붙는다. '일과 신앙'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한다. 하지만 여기, 이러한 과제들을 거뜬히 해내고 연말 각종 상까지 휩쓴 직장불자들이 있다. 한국소

## 소보원 불자회 터웃대감 신동구·송병준 불자

지난 12월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원 두 명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신동구(51· 기획관리실장·법명 해전), 송병준(53· 분쟁조정2국장·법명 수송) 불자. 이들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장식류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 멤버로,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소비자 관련 정책통들이다.

## 소비자 권익보호 공로 국민훈장·대통령 표창

"세상을 기차게 잘 사는 법 불교에 있습니다"

이들의 신황활동도 남다르다. 신 불자는 지난해 4월 소보원법우회 창립을 주도하면서 초대회장을 맡았고, 송 불자는 고문으로 법우회원들의 신황활동을 도왔다. 불교공부도 열심이었다. 이들은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각각 28.29기로 졸업하는 등 신황에 깊

이를 더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일과 불교'는 어떤 의미일까? 신 불자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일이 불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을 불교처럼 믿었고, 불교를 일같이 했습니다. 불교와 일은 틀리 아니었습니다. 신황

과 업무는 느슨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다. 언제나 긴장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송 불자도 한 마디 거둔다. "세상을 기차게 잘 사는 법, 그건 바로 불교에 있습니다. 사람들간의 갈등과 오해 등은 자비심 앞에서 그대로 녹아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조직을 이끄는 힘이 불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자보호원 법우회 초대회장 신동구, 고문 송병준 불자, 그리고 대한불자기술회 남강수 명예회장과 전국불교교정인연협회 이영복 재정국장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 이들은 모든 일이 수행이었고, 수행이 일이었다고 말한다. 12월 10일, 불교계에서는 '일등 포교사'로, 일터에서는 '으뜸 일꾼'으로 손꼽히는 이들을 만나 불교사랑법을 들어다봤다.

## 포교 원력상 수상 남강수·이영복 불자

재소자 포교에 원력을 세운 사람들. 대한불자기술회 남강수 명예회장(63·법명 범상은 '불음(佛音)'으로, 전국불교교정인연협회 이영복 재정국장(49·법명 종심·영등포교도소

## 재소자에 24년간 佛音...가수 8명 배출

영치금 지원 "부처님 세계로 이끌려 노력" 처님 노래를 전파했고, 이 국장은 79년 교도관으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재소자 교화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13일 시상한 제15회 포교대상에서 원력상을 받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화 업무 자체가 포교였습니다. 때문에 일터에서의 신황활동은 업무의 또 다른 방식

이었습다. 무엇보다도 재소자들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소자 불음포교 24년째인 남 회장은 그동안 8명의 불자재소자 가수를 배출시켰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단란 마음을 여는 데 불교음악만 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불교와 음악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절묘한 만남이 '불음' 전파였습니다. 90년에 대한불자기술회를 창립한 것도 불자가수들의 이런 믿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직장·직능불자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제는 사찰, 가정의 불교를 바탕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과 신앙의 공동체'를 일구는 일터가 바로 진정한 신황터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우리 모임에선



### 과천청사 불자연 송년법회

정부과천청사불자연법회(회장 송도근·사진)는 12월 16일 서울 구룡사 대법당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 상선암마애불 등 답사

포항교사불자회(회장 박기백·사진)는 12월 14일 경주 포석정, 팔각정, 상선암 마애불, 석조여래좌상 등으로 문화재교 답사를 다녀왔다.



### 감사교원장모임 승진

감사원불자회 회장 장광명(사진) 감사4국장은 최근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감사원 감사교원장모임 승진했다.



### 창립12주년 법회·가요제 결선

대한불자기술회(회장 김활선·사진)는 12월 5일 서울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창립 12주년 기념 법회 및 전국가요제 결선을 실시했다.



## 금강메아리 창립 10주년 법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는 12월 7일 서울 하립각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경희 회장, 김대원 창립 초대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 우리불자회는요

### 삼성정밀 불자회

불자회 창립 계기는 소박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을 울산시 태화교에 설치하면, 울산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 할까?' 바람은 이랬습다. 생각만으로 머물렀던 그 바람은 당시 울산불교 청년회 홍보부장을 맡았던 우리 불자회장과 의논하면서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울산 시민의 뜻을 태화강변에 연등을 달았습니다.'

태화강 연등 불사의 실무 추진은 우리 회사(당시 한국비료)에도 고소란히 이어졌습니다. 연등을 달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싶

불자회가 되면서 법회도 봉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자회원들은 바쁘고, 처음의 발원은 조금씩 열여지기만 했습니다. 회원들은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잖아.' 우리 불자 회원들은 신심을 다시 북돋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8년 9월 유명무실해진 불자회를 '삼성정밀불자회'로 재창립해, 불교기초교리 공부, 정기법회, 성지순례, 자비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매년 10일정도 사내에 연등불을 밝혔고, 지난



삼성정밀 불자회원들이 울산 죽림정사에서 하얀가 겹쳐 100일 관음기도 정진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 부어 활성화

### 울산광역시청과 매달 합동법회 추진

은 마음은 불자라면 어쩔 수가 없었나 불입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는 않았습다. 회사에서 쉽게 허락을 안 해주었습니다. 이래저래 설득하면서 우리 불자회는 결국 회사 입구에 있는 다리 양쪽에 부처님 등을 밝혔습다. 참으로 그때의 환희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다. 사원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습다. 이후 부처님오신날이면 연등을 계속 밝혀 사원들의 행복과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 1991년 5월 한국비료 불자회(현 삼성정밀불자회)가 창립하는 데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 70여명과 가족들이 동참하여 매달 불교 기초교리와 스님들을 초청하여 경전 공부도 하면서 성지 순례도 다녔습다. 그러다 어느 날 서서히 명맥만 있는

해부터 사내 연등 수익금과 회비를 모아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그 수익금으로 인근 복지시설인 '함께하는 사람들'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TV와 DVD를 선물했고, 2003년에는 컴퓨터도 기증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불자회 소모임인 자비봉사회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을 봄에는 사택 독신 숙소에서 지안 스님(전 통도사 강주)을 초청하여 대법회를 열어 많은 사원과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법회를 꾸준히 열 생각입니다.

을 1월에 창립된 울산광역시청 불자회 등과 매달 합동 법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여년 전부터 사원들이나 주위에 상을 당하면 벌여온 '금강경 독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진석 회장

새로운 천년문화  
예원예술대학교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전공

**교육목적**  
문화재보존학과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여 훼손, 소멸되어 가는 전통 문화재를 보존, 전승시키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문이다. 특성화된 학과로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보수, 미술공예품의 전통적인 기법을 발굴, 기록, 실시하는 물론, 초현대적 보존과학기법을 보강하여 완벽한 문화재보존기법의 습득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능 위주만이 아니라 인간화 중심의 교육과 보존과학과 관련된 인접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함께 하여 참된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지향**  
■ 전통적인 문화재 수리방법의 체계화  
■ 현대적 보존과학 기법 연구

**졸업후 진로 (첫 졸업생)**  
■ 문화재수리기술사(보수, 단청, 보존처리, 고조경, 실측설계)  
■ 문화재수리기능인  
■ 박물관 큐레이터  
■ 문화재관리행정전문가

**2000학번 전원취업**  
■ 문화재수리기능인 2명 합격(한식복수, 보존처리공)  
■ 문화재수리기술사 1명 합격(보수기술사)

**2004학년도 모집정원**  
■ 정시모집 "다"군 예술경영·문화재학부 20명

**인터넷원서접수**  
■ www.yewon.ac.kr  
■ www.uway.com  
■ www.apply114.com

**우편접수**  
■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271번지 예원예술대학교 입사관리팀 앞

**입시상담**  
☎ 063-640-7291, 011-9645-0170

#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시에 국내최대오가피판매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의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져서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판매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 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 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0047**